

대림 제 1 주일

기도서 207면 (B해)
 제1독서 : 이 사 63, 16b-17, 64, 1. 3b-8.
 제2독서 : 1 고린 1, 3-9
 복 음 : 마 르 13, 33-37

숲 정 이

발행처 : 전주교구주교구
 편집인 : 홍 보 국
 인쇄 :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 련



준비상태 점검

나 춘 성 신부

A 해 대림 1주일 미사를 봉헌한 지가 엇그제 같은 때 벌써 한 해가 지나고 B해 대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세월이 유수 같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연중 마지막 주일인 연중 34주일 그리스도와 축일을 보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분기점, 전환점에 서있는 것이다. 지난주의 복음이 최후의 심판을 전해주고 있으며,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 지 모를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전하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은 끝과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자, 전환점인 것이다.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물어 가면 망년회다 송년회다 하면서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돌이켜 보고 아쉬움을 달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가지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신앙인인 우리도 전례력으로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우리 신앙생활을 반성해 보고 새로이 맞이하는 이 해에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인간은 항상 하느님을 갈구하는 존재이다. 하느님을 항상 갈구하고 있는 존재인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느님 앞에 불려 나가자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우편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좌편에 서야만 할 것인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면서 세상의 종말에 우리를 심판 하시어 새로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이제는 우주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며칠 전 늙으신 분이 오신다고 전주 시내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미약한 인간이 오는데 그같이 몇날에 걸쳐 준비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되는 데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찌 소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 지난 일일량 모두 주님께 용서를 빌고 새로운 마음자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결코 형식에 그치는 준비가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나라 백성된 도리를 다하도록 하자.

(중앙성당 보좌신부)



되돌려 받은 30원

또다시 대림절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시기에 저지분했던 어제를 성찰(省察)하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어 보자.

어느날 시내버스 안에서 아는 분을 만났다. 그분은 먼저 내리며 나의 요금까지 계산했다. 내 집까지의 요금은 150원이다. 그런데 나는 중간에서 내려야 했다. 요금은 120원이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다. 차액 30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에게 거저 받았으니 그냥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계산은 계산대로 해야 옳은가? 당연히 30원을 되돌려 받아야 하겠다고 판단을 내린 순간, 안내양이 먼저 답을 주었다. "아저씨, 30원 받아가세요. 계산이 더 되었어요." 순간 의아하게 느껴졌다. 당연한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꼴이 우습기도 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름표를 읽었다. 「박 정 이」

제 5공화국은 사회정의구현·사회정화 등을 지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관공서나, 공공건물에 그러한 말을 써붙여 놓고 있다. 그런데도 反정의·反정화 사건들이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를 맥빠지게 하고 있다. 권력이나 재력을, 그것도 큰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박양처럼 더받은 30원을 되돌려줄 줄 모르는 30원짜리도 못되는 자들이다. 왜 그러는가?

박양을 만난 그날은 내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 자꾸만 누구라도 불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 더욱 기뻐했다. 새해에는 맑은 아랫물에게는 <정화차원>이야기 그만하고 온통 흙탕물이 된 윗물이나 정화하자. 새해에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돌려 주자. 기본적인 인권도, 핏뚱풀려 일한 댓가도 제대로 갖게 하자.

숲 정 이 산책

전주교구 푸른큰대림절
1984. 12. 6.(목)
장소 노송동성당

기도 많이 합시다

□전례 해설

대림절과 신자생활

오늘은 대림 제1주일로 교회달력 즉 전례주년의 시작이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전의 4주간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음과 세상의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중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그 준비과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성탄을 맞는 준비는, 성모님께서 동정녀로 주님을 맞이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겸허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권능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꾸준한 기도 가운데서 버림받은 이웃과 사랑의 손길을 갈구하는 곳에 바치는 희생으로 세상의 종말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0주년 반성

한국 천주교회는 “이 땅에 빛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주년 기념의 해를 보냈다. 전주교구에서도 전국 차원의 행사와 사업, 활동에 동참하면서 또한 교구 나름대로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한해였다.

200주년을 지낸 1984년은 분명 한국 교회에 은총의 해였다. 그러나, 200년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교회쇄신을 이루어 이 땅에 빛이 되자고 교회 안팎으로 외쳐왔던 만큼 효과를 거둔 한해였던가? 지금 200주년을 평가할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음 몇가지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0주년을 지내며 교회 쇄신에(내 신자생활 쇄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젊은 세대, 노동자, 농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한 200주년이었나?

▲선조 순교자들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화하고 있는가?

▲방한시 하신 교황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천하는가?

▲200주년 포어대로 이 지역 민족 복음화에 얼마나 노력했는가?

▲교구 내(분당 내) 성직자와 평신자들이 일치하였으며 분당과 분당간에(특별히 도시분당과 시골분당이) 유대가 이루어졌는가?



식탁에서

홍로벨다

오늘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는 데 7살된 큰아이가

“엄마, 이 음식은 엄마가 만들었는데 왜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며 엄마는 이상하단다.

“아니야, 제일 처음에 쌀, 채소,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요리만 한거란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당연히 감사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니?”

“응, 그래요” 아이는 이해가 됐는지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하더니 결연쩍은지 씨익 웃고 힐차게 뛰어나간다. 그러나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진실로 나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

우리 인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이 되는걸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삶의 일부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하느님께 식사때 하는 기도 외에도, 머릿속에는 온갖 잡동사니 일들을 가득 집어넣고 내용없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자부해온 메말라 버섯거리 는 나의 자세였다. 1분도 걸리지 않는 기도를 잊어버리기 일쑤고, 미신자들과 식탁에 앉으면 쑥스러워 마음 속으로만 하고, 교우들과 음식을 들 기회가 있으면 바리사 이인이 되서 소리내어 기도했던 걸치레 생활만 해온 엄 마였다는걸 알면 아이는 또 뭐라고 물어올까? (엄마는 정오에게 부끄럽구나)

온 가족이 모여, 또는 가까운 이들과 같이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식사나 다과시간에 훈훈한 인정이 느껴지는 식탁에서 담소하며 웃음꽃이라도 피우면 그 어느 제왕의 전수성찬이 부러울까!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은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고 무관심하게 사물을 대하는 저의 좁은 마음을 제 아이로 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포리부동한 엄마가 아닌 가을 하늘을 맑은 맑은 눈빛과 백합꽃 향기가 스민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착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 주신 하느님, 오늘 같이 차가운 날씨엔 따끈한 한잔의 차에서 당신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음을 느낍니다. 하느님, 제 생활이 감사의 기도로 넘쳐나, 항상 넉넉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가 변하지 않게 때때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군산 팔마분당>

한 일 옷 감

- 혼수(회갑, 수의)옷감
- 명주, 목화솜이불 전문

교우분들께는 영가봉사

전주 구남부배차장(영신당한약방 옆)

조 성 순 (테레사)

TEL. 2-7203

신비의 식품

성 베네딕도 왜관 대수도원 제조

靈 芝 영 지

◎영지: 혈압, 당뇨, 관절, 위장 불치의 성인병에 특효

전북 이리시 송학동 238~67 ☎ 3-3162
李 야고버(東出) 박 안젤라(月順)

□ 퇴재 성직자 묘비 제막

고산본당(주임신부-박 병준, 사도회장-허 완)에서는 본당 내 퇴재공소에 모셔져 있는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 두분 신부님(Arnaldus Lafourcade 신부, Joannes B. Josse 신부)의 묘비 제막식을 다음과 같이 갖는다.

200주년을 지낸 우리에게 의미있는 자리가 될 묘비 제막식에 많은 분들의 참여있기를 기다린다.

일 시: 12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퇴재공소

주 레: 박 청 일 주교님

* 한국 외방선교회 성소 피정

대 상: 84년도 학력고사를 치른 고3 수험생 및 일반 청년으로 영세 후 3년이 경과한 남자

일 시: 84년 12월 15일(토) 오후 3시-익일 오후 5시(1박) 장 소: 상지회관

접수방법: 성명·본명·주소·생년월일·12월 13일까지 보낼 것(신청수 30명)

[132]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160, 전화 93-1946-5145

준비물: 성서·공동체성가·복주·필기구·세면구·잠옷·회비(서울 5천원, 지방 2천원)

□ 새로 나온 책 소개

있는 그대로 강경렬 지음 2,000원
 평범한 신앙인이면서 결코 평범한 신앙의 삶이 아닌 보다 인간답고 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저자의 주변에서의 삶을 허식없는 모습으로 엮어가고 있다. '참된행복'의 정신을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와 진실한 대화들이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함을 준다.

성서의 인물③ 永井明 지음 홍순자 옮김 2,600원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대와 배경, 사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엮어 성서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신 하느님은 바로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매순간 말씀하고 계심을 실제 생활의 예를 함께 곁들여줌으로써 구약 속의 먼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다. —성바오로 출판사—

성소자 모임에 가는 날

조 덕 기(시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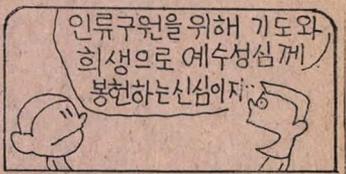
'빛바라기'를 받아 보고 성소자 모임이 정해지면 난 그날이 몹시 기다려진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다 새삼 느끼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피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 나의 눈에 모두가 천사같이 느껴진다. 모두가 깨끗한 마음세를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모인 우리들, 주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며 사는 이들이 곧 내 형제가 아닌가!

어느덧, 일시가 돌아왔다. 차를 타고 가톨릭 센터를 향하여 달리노라면 모든 세상 만물들이 나를 반겨 주는 것 같다. 특히 저 가보수들이.....

모임있는 날이면 항상 기쁨이 넘친다. 모든 것이 신하게만 느껴진다. 이것이 주안에 생활하며 사는 참마음이 아닌가 싶어진다. 그곳엔 내가 찾고 그리워 하던 많은 이상향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수녀님, 그리고 신부님, 또 많은 학사님들, 나는 항상 이분들을 존경하고 본받고져 노력한다.

나는 하나의 작은 꽃봉오리이다. 이 못된 꽃을 활기있고 생생하게 피워 보려고 나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전진해 나간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행합시다. (정음본당)

요심이(591) 김병오



- 혼수(회갑)웃감
- 복수 파티복
- 고급 칠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도매상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결혼, 회갑, 돌, 각종문화행사, 비디오 특수촬영 전문

대우전자 비디오 특약점

영진비디오

취급품목
 대우전자 T·V, V. T. R, 각종성서, 교육용, 프론티어, 판매 및 교환
 채석자(글라라)
 2-4094 전주 백화점 옆



숨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창기(루가)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운자

☎ 1719, 74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등면 출)

이리 최윤경 미용실·미용학원

학원생 주·야간 수시모집
 신부화장, 드레스, 페덱복 제공
 미국, 불란서를 비롯 구라파 여러나라에서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원장 최윤경(유리안나) 직접 지도합니다.

☎ 이리 2-8653 3-2496



- ☆ **축! 건진: 교창분당(2일)**
1. '84 제11차 레지오 연수회: 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타 회의실
대상-각 푸리아 및 브레시디움 간부, 캅가비-3천원 (푸리아 지원)
 2.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일 (월)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3층 성당
 3. 사제 총회: 4일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회의실
 4. 푸른군대 피정: 6일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노송성당, 회비-1천원 (미사준비, 도시락 각자 지참)
대상-레지오 단원 및 일반신자, 강사-박정일 주교·김용태 신부·김봉희 신부
 5. 사목방문: 5일 오전 10시-해성학교, 6일 오전 10시-성심학교
 6. 신학교 후보생 피정: 8일 오후 4시~9일, 장소-가톨릭 센타, 회비-3천원, 대상-고3·대·일반 남자
(성소모임 회원 및 신부님 추천자), 지참물-미사도구·세면도구·필기도구
 7. 제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2일 오후 2시, 장소-정읍성당
- **축! 영명: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3일)**-고 경훈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 전화 ⑥1711~3
-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1. 레지오 연춘친목회: 12월 8일, 장소-중앙신협
 2. 성탄반 종합교리: 12월 5일~6일 오후 7시30분 강당
면접: 일반-7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학생-8일 오후 5시 3. 사도회: 금일 공식미사 후
 4. 판공 면담일정: 11일-진북·경노, 12일-인후, 13일-금암·배평, 14일-고사·경원·중노, 15일-기타·학생, 시간-오전 10시~12시·오후 7시~9시
정사일정-14일·15일·18일·19일(오전 10시~12시·오후 7시~9시)
- **지난주 교무금: 1,033,840원 교무금: 1,423,300원**
감사헌금: 최태례사-2만원, 최누시아-5천원

(노송동)

-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⑥7032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정성과 희생으로 새생전 건립하자: 신일 바란
 2.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참석합시다
 3.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전 9시
 4. 공소 판공일정: 3일 오전 9시-진원리, 오후 2시-황정리·금상리, 오후 5시-신교리, 5일 오전 9시-황윤리, 오후 2시-다리리공소
 5. 분당 울트라아: 오늘 저녁 8시
 6. 예수성심회 월례회: 4일 어머니미사 후
 7. 아파트 성당에 성화상영: 16일 공식미사 후
 8. 자원의 전례담당: 제 3조 차질없이 진행합시다
 9. 젊은이의 레지오 창설: 동신자의 모욕pr.
 10. 판공전 부녀자 피정: 4일 오전 9시~오후 4시30분, 레지오 회합은 그 전주일에 후일에 하세요 준비물-1천원, 성서, 도시락, 목주, 미사포
 11. 미사시간 변경: 평일-오전 6시30분, 오후 6시30분 주일-오전 6시30분, 오후 6시
 12. 판공일정: 12월 10일~21일 사이에 실시함

(덕진)

-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금주 판공성사 안내: ④ 4일~5일-덕진 14일~20일, 6일~7일-금암동 전신자, 11일~12일-송천동 전신자, 13일~14일-팔복동·기타 ⑤ 공소-오후 4시 가정방문, 7시 성사, 9시 미사, 미산리-8일·14일 전당리-9일·15일
 2. 분당 수녀님 영명축일: 12월 1일·2일 김비비안나·강을림외야 수녀님 축하합니다
 3. 까리따스 자모회: 4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5일 오전 10시
 4. 병자성사 및 봉성체: 7일 오전
 5. 유아세례: 다음주일(9일) 오후 3시, 사무실에 신청
 6. 진북유치원 원아모집: 금주부터 원서교부
 7. 사도회 정기총회: 다음주일 밤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교무금: 1,333,000원**

(복자)

-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L·M 연춘친목회: 8일 저녁미사 후, 단원·협조단원
 3. 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4. 성우회 정기총회: 24일 자정미사 후, 월례회 없음
 5. 성탄 판공성사: 11일-다가동, 12일-중앙동·고사동·원산동·화산동, 13일-배평동, 14일-진북동·기타 15일-학생·직장인, 오전 9시~12시·오후 2시~5시

(서학동)

-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⑥2276 사도 회장 김낙균
6. 병자 판공성사·봉성체: 18일 오전 9시, 신청 바란
 7. 온풍기 설금: 박흥기-3만원, 이상철-1만8천원, 최인의 의탁-2만6천원, 익명-2만원, 박봉례-5천원
 8. 가정방문: 6일, 가정방문 빠진 교우집
 9.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 조성호 ② 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20,230원 교무금: 466,450원**

(순정리)

-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모임: 사도회-3일 저녁 7시30분, 자모회-4일 오전 10시30분, 구역장 월례회-3일 오후 3시, 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2. 성전 보수공사 헌금: 5천원-곽길순·장영태·김행자·이복순·장판규·정신자, 1만원-양복순·문치구, 2천원-김경태·박무영, 2만원-남태관·익명, 1천원-박남석, 5만원-김청운, 3만원-익명, 10만원-익명·은석기, 3천원-강전숙, 누계-7,948,411원
 3. 판공일자: 4일-광곡리공소(오후 3시), 6일·7일-기타·13반·8반, 12일·13일-12반·11반·7반, 14일·15일-9·6·4반, 18일-5반·3반, 20일-2반, 21일-1반
 4. 차주전례: 해설-김배근·고정주, 독서-① 차상열 ② 김찬기, 기도-의덕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331,340원 교무금: 455,500원**

(전동)

-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수녀 ⑥3222 보좌 신부 김양열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목방문: 시간 오후 1시~5시, 7시~9시
12월 3일-진북1동, 5일-어은골(오후 1시~5시), 6일-금암1구, 7일-금암2구, 11일-배평동, 12일-동양아파트, 14일-기타 ※교무금, 신학생후원회비 미납자는 속히 완납 바랍니다
 3.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박해근·문안나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동현·교영숙
- **지난주 봉헌금: 221,400원 교무금: 486,400원**

(호자동)

-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종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구역 판공성사: 오전 10시, 4일-태하아파트·한성·거성아파트, 5일-효자 1단지·오후 2시-중화산동, 6일-서완산 4구역·오후 2시-서완산 5구역
 2. 푸리아: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수요기도회: 저녁 7시~9시 (마르코복음 3장)
- **지난주 봉헌금: 343,385원 교무금: 614,000원**